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가 된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3·1절 80돌 - 수송공원에 '普成社 기념 조형물' 건립

“조계사 민족자주정신 성지”

범종교 3·1정신 현창운동추진위
민족기상·단결 상징 조형물 세워

독립선언서 인쇄했던 보성사
현재 조계사 대응전 앞마당

“이곳이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곳이란 걸 아십니까?”

“글쎄요...”
조계사 마당에서 만나는 불자들이 대부분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普成社) 위치가 현재의 조계사 법당 앞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3·1절 80돌을 앞둔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옛 수송공원에 황금빛의 조각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계사가 민족의 자주정신을 현상하는 명소가 부각되고 있다.

수송공원에 세워진 조형물은 3·1운동 당시 전국에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를 기리기 위해 범종교 3·1운동추진위원회가 설립한 것. 서울 시립대 정태영교수가 조각한 이 조형물의 상단부는 청동을 재료로 39인의 군상을 형상화해 민족의 기상과 단결을 표현하고 있다. 상공에서 보면 조형물의 형태가 태극마크로 보이는 것도 민족정신의 결집 의지다. 이 조형물의 하단에는 독립선언서와 보성사의 옛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 상황도와 새움말이 조각되어 3·1 정신의 계승 의지를 담았다.

보성사는 1919년 2월 27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으로 원래 위치는 수송공원이 아니다. 현재의 조계사 법당과 그 앞의 왜나무 사이가 원래 위치다. 30평의 2층 건물이었었는데 3·1운동 직후 일본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지금은 종로구 견지동 44번지.

27일 기념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불자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역사적인 장소가 오늘날 한국불교의 1번지인 조계사 마당이란 사실은 보통의 인연이 아닐 것”이라며 “조계사가 불교 본규의 현장으로 세계에 알려진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1정신을 바로 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1운동의 의미와 해방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마음이 사무친 독립선언서로 인해 3·1운동은 전국에서 활화산처럼 타올라 수 있었다.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한 민족대표 39인 가운데 백용성, 한용운, 스님이 불교를 대표해 참여했듯 오늘날의 모든 불자들이 국민대표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숨막히게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옛터가 오늘날 수행도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역사의 선물’이란 게 불자들의 의견이다.

범종교 3·1정신현창운동 추진위 가 수송공원에 조형물을 세운 것도 종교인이 3·1정신을 계승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따라서 누구보다 지리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불자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조계사는 법당과 왜나무 사이인 보성사의 원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별도의 안내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수송공원의 조형물 위치가 3·1운동 당시 보성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성사는 1906년 이용익 선생이 ‘흥학교 이부국가(興學校 以扶國家)’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사립 보성중학교의 교내 출판사였다. 독립선언서가 보성사에서 인쇄된 것은 민족대표 39인중의 하나인 이용익 선생이 보성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용익 선생은 훗날 ‘복암비방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다.

“2월 20일, 오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쇄하기 시작했다. 장효근 김홍규 최남선 신영규와 내가 좁은 인쇄소에서 문을 굳게 닫고 찍기 시작했다. 25일, 255천 매를 우선 인쇄 완료하여 천도교 본부로 운반한다. 26일, 1차로 인쇄된 것을 각계 풍자를 7~8명에게 2천에서 3천매씩 배포했다. 27일, 오늘까지 2차로 1만매를 더 인쇄하여 천도교당으로 가지고 가다가 파출소에 검문 당했으나 폭보라고 속이고 겨우 운반했다. 어제 대한인 형사는 의암과 상의하여 겨우 때우 할 수 있었다. 수 천원을 잡아 주니 결연하게 물렸다.”

이 비방록에는 간단히 언급됐지만 독립선언서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 형사의 일화는 유명하다.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가 함철 인쇄되던 1919년 2월 27일 밤, 보성사를 급습한 총경찰서 소속 한국인 형사 신철(신철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이 독립선언서 인쇄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상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독립민세 운동은 좌절될 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용익 보성사 사장은 다급한 그 순간에 침착히 대처했다. 천도교 중진 최린선생을 찾아 그와 만나게 했다. 최린 선생은 그에게 “간악 임을 다물어 준다면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라며 거



수송공원에 27일 제막된 보성사 기념 조형물.

금 5천원을 건네 주었다. 그리고 형사는 독립선언서 인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철은 곧바로 신의주로 출장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3·1운동 후 일본 경찰은 신철의 ‘배신’을 알게 됐으며 신철은 용산헌병대에 의해 체포됐다. 신철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에 앞서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갔다.

80돌을 맞은 3·1운동,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 미래세대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3·1정신 현창 운동의 대의다. 추진위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발표한 ‘3·1정신 현창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영성길은 인간으로 절화공생하는 우주적 주체로 거듭난다. △조국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극 정진한다. △모든 종교인들은 한 마음을 이루어 새 세상을 향하여 순일하게 나아가 간다 등의 의지를 밝혔다.

임연태 기자(yitim@buddhania.com)

3·1절 관련 행사

3·1절 기념식	3월1일 오전 11시, 탑골공원
3·1정신 현창대행진	3월1일 오전 10시, 조계사 명동성당 등에서 탑골공원 구간
학술발표회	4월19일, 주제 ‘국난극복과 21세기’ 함철 3·1정신 계승방안
미술전시회	3월1일~10일, 서울 관음동 동호갤러리
한글문 백용성스님 추모법회	3월1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관동여고 강당



1919년 3·1운동 직전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의 모습. 우측 뒷편의 흰 옥집이 보성사이며 그 앞 왜나무는 지금의 조계사 법당 앞에 있는 나무다.



옛 보성사 터는 지금의 조계사 법당과 왜나무 사이.

2·8 독립선언기념 한일 평화행진

반전·반핵 주장... 김희로 석방탄원서도 제출

3·1 독립선언에 앞서 80년전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거행된 2·8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한일종교인 평화순례행진이 2월10일 일본 동경시내에서 펼쳐졌다.

일본 내 한국YMCA 주최로 개최된 이날 평화행진단은 10일 동경시내에서 ‘전쟁반대 및 반핵, 평화’ 행진을 전개한데 이어 12일 일본 항공 자위대 백리기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행진단은 13일 일본 방위성을 항의방문하고, 14일 주일한국대사관에 김희로 석방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한일종교인평화행진에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사무처장 도관스님, 박정기 유가협회 회장 등 4인의 불교계 대표가 참석했다.

진관스님은 16일 열린 동경집회에서 ‘전쟁반대’에 대해 연설했다. 행진에 참여한 도관스님은 “현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오늘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자부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설가 송우혜씨가 공개한 ‘독립선언’에 의해 대한독립의군부가 중국 지린(吉林)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1918년 무오년 이 아니라 1919년 3월 중순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1919년 동경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필선 기자(psd@buddhania.com)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과 도관스님이 일본 자위대 백리기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음사 벽화 '천상주악상', 1740년.

우주의 근원 생명의 원천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태극

“우주의 근원은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을 낳고 동(動)이 극(極)하면 정(靜)하여 음(陰)을 낳는다... 양이 변하고 음이 화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아서 오기(五氣)가 차례로 배풀어지고 사시(四時)가 운행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동양철학의 핵심인 태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태극은 우주 만상의 근원이며 인간생명의 원천으로서 진리를 표상한다. 따라서 태극은 사물이 있을 수 없는 구원(久遠)의 상을 상징한다. 태극도형은 우주가 음양의 대립적인 원리로 갈라지기 이전의 원초적인 상태를 표상한 것이다.

고대부터 문화유적이나 생활습속에서 태극의 관념과 도형은 많이 나타난다. 서양에서의 태극 문양은 음악 상호작용의 상징이며 전체와 부분의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공예품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삼태극은 하늘 땅 사람의 3재(才)를 표현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관음사 내벽화로 천정에 그려진 천주 악상의 북에 삼태극 문양이 산명했다.

오른쪽 그림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북에서 표지 그림이다. 태극무늬가 서로 연결돼 생동감있게 장식되어 있다. 허립(예천 법화암 주지)



성 마태복음서 표지 그림(부분), 721년. 대영박물관 소장.